

학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소폭 상승

도교육청, 공사립학교 행정실장 이상 교감·교장 대상

전북도교육청이 공사립학교 행정실장 이상 교감, 교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체 청렴도평가를 한 결과,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교육청은 학교장 등 총 2562명에 대한 개인청렴도평가 결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고위공직자그룹은 전년도보다 0.9점 상승한 98.1점, 각급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그룹은 전년보

다 1.7점 상승한 98.6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 청렴도는 내부직원과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들이 이메일 설문조사 응답 형태로 평가한 결과다.

다만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직자에 대한 외부평가단의 점수는 전년보다 1.0점 하락한 97.3점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청렴도를 보면 공립 행정실장이 9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 팀장과 사립학교 행정실장 그룹이 98.7점으로 뒤를 이었다. 도교육청 및 기관 그룹에서 도교육청 국과장, 교육장그룹은 97.7점, 교육지원청 과장그룹도 97.8점으로 다른 그룹에 대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각급 학교의 경우에도 공사립 유치원장(97.5점), 사립학교 교감그룹(98.0점)이 다른 그룹 대비 낮게 나왔다.

한편 지난해 하위권으로 평가됐던 사립학교 교장(98.4점), 교감(98.0점),

행정실장(98.7점)의 청렴도평가 결과는 올해 상승했으며 지난해 공립초등학교 교장그룹(98.4점)보다 낮았던 공립중고등학교 교장그룹(98.5점)도 올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개인청렴도 평가는 도교육청이 중앙경연연구소에 의뢰,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청렴정책 일환으로 2011년부터 개인청렴도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은 6년째 다문화 인재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에 특화된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북대, 다문화 인재 교육 '전국 최우수'

수학·과학 체계적 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호평

다문화 학생들이 우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단장 인병준 교수)이 최우수 사업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 사업단은 전국 17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 연차평가에서 수학·과학 분야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2014년에 이어 3년 연속이다.

6년째 다문화 인재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펼치고 있는 사업단은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평가

를 이끌어 냈다.

사업단은 다문화 인재들에게 과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WAO!(We Are the One!) Project를 운영해 참여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의 영재교육 기관에 합격하며 연계 학습 욕구와 도전정신이 반영된 성과 역시 돋보였다.

인병준 단장은 "전북대가 갖고 있는 풍부한 인프라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이 실제 실험과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과 수학에 대

한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적 성장과 더불어 정서적 성숙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올해 역시 교육에 참여할 초등(4~6학년)부와 중등부 각 20명씩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업단 홈페이지(www.gbedu.ac.kr)에서 원서를 내려 받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여름방학 집중교육(7월31일~8월4일)과 학기 중 교육(월 1~2회 토요일)으로 구성된 1년 과정을 받게 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25일 개최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서관 자료도 디지털화된 전자자료로 급변했다.

전북대학교 도서관도 매년 20여 명의 예산을 들여 전자저널, 학술DB 전자책, 사이버 학습 콘텐츠 등 9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전자 자료를 구입하여 대학 구성원에 제공해 오고 있다.

전북대 도서관이 이러한 전자 자료들을 알리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4회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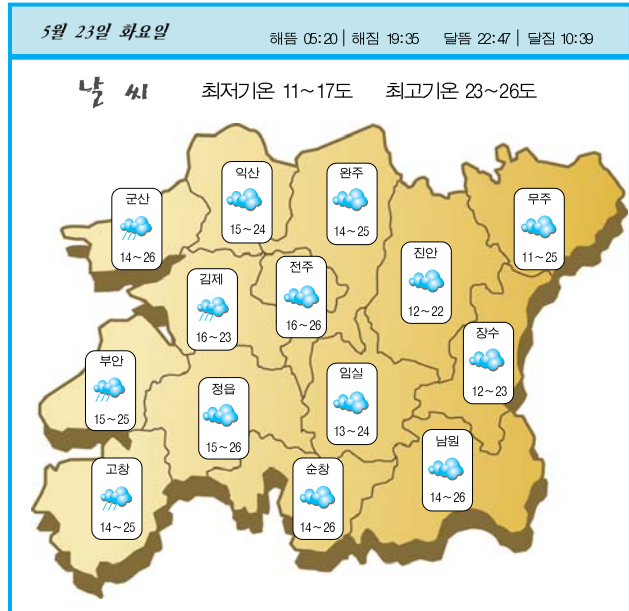
'CBNU e-Library! 디지털 세상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박람회에서는 사이버 학습, 국내 학술DB, 해외 학술DB, 한국학 학술DB, 도서정보 제공DB 등 전자자료의 주제별, 형태별 특징에 따라 총 25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는 전자자료 부스 투어를 통한 정보 탐험을 비롯해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운의 룰렛 돌리기 이벤트를 통한 소통 한마당, 온라인 학술정보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6개 이상 부스 투어 및 3개 이상의 전자자료 어플을 모바일 기기에 모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다채로운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오전 10시부터 중앙도서관 콘서트홀에서는 이화에게 김순 박사가 '효과적인 국제학술지 투고 전략'을 그리고 아르코넷 박민순 이사가 'SCI급 저널을 만들기 위한 Process'를 주제로 각각 특강도 펼칠 예정이다.

박승제 도서관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고교생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 개강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

고등학생 대상 '하이클래스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이 21일 개강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고 1, 2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 독서와 강의를 통한 철학적 사고능력과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17주(51시간) 동안 매주 일요일에 3시간씩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주 한일고(8학급), 군산 전북외국어고(4학급), 익산 전북제일고(2학급)를 권역별 거점학교로 지정했으며 인문반과 자연반으로 나눠 14학급 총 2백60명의 학생이 참여

해 독서 후 토론 및 강사특강, 주제 탐사 보고서 작성 등을 이수하게 된다.

강사는 학생에게 현직 교사의 참여를 늘려 양질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분야는 교수, 작가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다.

수업은 1일 3교시 무학년 통합 인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독서?토론?강의 후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수 정예 인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철학적 성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영어교수법 연수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주현)은 최근 영어교사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EBS Easy English 메인 진행 및 집필을 맡고 있는 김태연씨를 강사로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영어교수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날 연수는 전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정확한 발음지도법, 말하기를 잘 하게 하는 교수법, 듣기 학습법에 관한 특별한 진실, 어휘 교수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연수에 참가한 약 130명의 영어교사들은 매일 오전 7시 20분부터 20분간 방송되는 EBS Easy English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고 당일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김태연씨의 생생한 강의에 집중했다.

손주현 교육장은 "영어교사들에게 학생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부담한 자기 연찬 및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교사가 함께 하는 워크숍에서 팀티칭 수업나눔을 했고 전통한지체함을 하며 관계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떠날 때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증의 '보급관'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